

['고난의 역사현장' 일제전적지를 가다](116)

제3부 :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 - 48 4)108여단 주둔지-(9)섬속의 섬 우도
동굴입구집자리 日 군사기지로 이용

입력 : 2008. 09.04. 00:00:00



▲태평양전쟁당시 일본군 탄약고로 이용된 우도 동굴입구집자리 입구.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2천년 전 선사인들 주거지 일본군 탄약고로 우도에 중대병력 주둔... 전진거점진지 구축

선사시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굴은 삶의 보금자리였다. 화산섬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용암동굴은 주거공간, 즉 집자리로 이용돼 왔다. 동굴입구집자리(cave dwelling site) 역할을 했던 것이다. 제주 용암동굴의 수는 1백50여 개소를 상회한다. 이 가운데 약 50여 곳이 선사인들의 주거공간으로 이용됐다. 제주도의 동굴·바위그늘집자리는 구석기시대부터 역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달리하면서 집자리로 이용됐다는 점에서 독특한 주거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선사시대 동굴입구집자리는 태평양전쟁 말기에는 일본군에 의해 이용되기도 한다. 취재팀은 지난달 30일 섬 속의 섬 우도를 찾았다. 우도는 '일본군 제58군배비개견도 제주도에' '전진거점진지'(前進據点陣地)로 표시돼 있다.



▲선사인들의 주거공간이었던 내부에는 총기류 등 각종 무기들이 저장돼 있었다. 동굴입구집자리 내부의 석축시설

우도의 동굴입구집자리는 일명 '포제동산'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다. 2002년에 알려진 이곳은 제주 본섬 이외의 주변 섬에서는 처음 발견된 동굴입구집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이곳에서는 적갈색 토기편과 대형 갈판(길이 28cm, 폭 16cm)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약 2천년 전 무렵 선사인들의 삶의 흔적인 것이다.

우도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동굴은 일본군들에 의해 탄약고로 이용됐다. 동굴내부에 소총 등 각종 총기류와 탄약들을 비축해놓고 연합군과의 일전에 대비했다. 이 동굴은 길이 약 10m 정도의 내부 통로를 지나면 4~5평 정도의 공간(장축 10m×단축 5m 정도)이 형성돼 있다. 내부는 바닥이 평탄한데다, 천장이 4m 정도로 높아 각종 전시물자를 저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주변에는 일본 해군 1개 중대병력이 주둔하면서 레이더기지 등을 만드는 등 차츰 섬 전체를 요새화 했다. 동굴에 있던 무기류 들은 일본군이 태평양전쟁에서 패하면서 우도봉 등대 앞 해상에 버려졌다. 일본군들은 당시 우도 주민 선박을 이용해서 무기들을 버렸다고 한다.

일본군은 또 우도 전체를 전쟁기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한다. 고용숙 할아버지(1929년 생·우도면 조일리)는 일본군이 우도 하고수동 해안을 군항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했다고 증언했다. 그 시기는 1945년 5~6월 무렵으로 일본군 2개 중대병력이 실제 우도에 진주했었다는 것. 이들은 설계를 끝내고 공사에 착수하려다가 일본의 패망으로 철수했다.



▲동굴내부에 탄약고터로 이용된 너른 공간이 평탄하게 만들어져 있다.

일본군이 이처럼 우도를 군사기지화 하기 위해 혈안이 됐던 것은 제주도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다는 중요성 때문이다. 우도와 마주하고 있는 성산 일출봉 해안에는 일본군 특공기지가 구축되는 등 상당한 전력이 밀집돼 있다. 사실상 우도는 제주 동부 지역 최일선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시기 오키나와와는 달리 제주는 천연동굴이 전쟁기지로 이용된 경우가 드물다. 일본군 기지로 이용된 대표적인 예는 조천읍 소재 와흘굴이다. 일본군들은 와흘굴을 진지로 이용하기 위해 굴 내부를 폭파시켜 인공적으로 변형시키는 시도를 했다. 우도 동굴입구집자리는 천연동굴이면서 선사인들의 주거지가 전쟁기지로 이용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당시 일본군 군사시설 구축 실태와 관련 여러모로 관심을 끈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현장인터뷰/우도면 고덕찬·오영돈·고용숙 응]"정뜨르까지 걸어가 비행장 공사에 동원"

우도에서 취재팀은 오영돈·고용숙·고덕찬할아버지를 만나 태평양전쟁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오영돈(1929년 생·우도면 서광리) 할아버지는 당시 일본군과 관련 "우도에는 일본 해군 1개 중대병력이 주둔하고 있었고 동굴입구집자리인 포제동산 동굴이 일본군들 탄약고로 이용됐다"고 말했다. 굴 안에는 소총 등 총기류와 탄약상자 등을 쌓아뒀다. 탄약상자는 어림짐작으로 폭 30~40cm 정도, 길이는 1m 정도로 기억했다. 포제동산 인근에는 레이더기지가, 우도 등대에는

망루가 설치됐다.



▲취재팀이 우도에서 만난 고덕찬·오영돈·고용숙 할아버지(사진 왼쪽부터)가 당시 일본군 주둔상황을 증언하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오 할아버지는 또 "17세 때에 해방됐으니까 일본군 주둔은 그 2년 전 쯤으로 기억된다"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일찍 주둔했었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우도가 제일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초기지로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겠느냐고 나름대로 추측했다.

오 할아버지는 이어 우도에는 목재로 지은 일본군 관사도 있었다고 당시를 더듬었다. 목재는 삼나무로 우도에서 조달한 것이 아니라 직접 싣고 왔다는 것. 관사 건물은 3~4채가 지어졌는데, 중대본부가 있었고 중대장인 일본군 대위는 민가가 아닌 관사에 거주했다. 관사는 광복 후에 우도의 실력자들이 뜯어다 집을 짓는 등 자재로 이용됐다. 또한 중대본부 앞에는 둥그렁고 길게 시멘트로 만든 방공호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져버렸다고 했다.

함께 자리한 고용숙 할아버지는 정뜨르비행장(일본 육군 서비행장, 현재 제주국제공항)과 진드르비행장(일본 육군동비행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린 아픈 경험을 털어냈다.

고 할아버지는 "당시 우도에서 풍선(무동력선)을 타고 출발, 종달리에 도착한 뒤 걸어서 정뜨르비행장까지 가야만 했다"고 회상했다. 정뜨르비행장에서 일한 시기는 1944년 음력 10월 무렵으로 50일 정도 있었다. 이어 고향에서 얼마 쉬다가 다시 1945년 2, 3월(양력) 진드르비행장 공사에 동원돼 다시 50일을 노동에 시달렸다. 그때 마을마다 인원이 할당돼서 우도 주민들도 많이 동원됐는데, 초신을 몇 켤레 만들어서 가야만 했다고 한다. 잠은 '함바'에서 잤으며, 못건뎛서 도망치다가 고문 당하는 등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고 할아버지는 이어 일본군이 우도 하고수동 해안을 군항으로 만들려고 설계까지 완료하고 공

사에 착수하려다가 패전으로 철수했다고 말했다.

당시 비행장 공사에 강제 동원되면서도 나이가 어린 탓인지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걸로만 알았다는 고 할아버지는 "우도 주민들도 북해도 탄광으로 3~4명이 끌려가 고생하는 등 모진 고통에 시달렸다고 덧붙였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작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